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How to prepare for death

마가복음 10장 32-34절

-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

1.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평소 깊게 생각해볼 기회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평소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이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2.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이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막8:29-31, 막9:31).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사셨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죽을지 일찍이 결정하고 사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나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묵상해봅시다(눅22:41-42). 그리고 난 후 이어서 43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힘을 더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5.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막8:34)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6. 모세는 평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노력했지만,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

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당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하여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34장, 특히 7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모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7.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지난주 말씀에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던 청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이웃 사랑이었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을 질문 삼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